

宗家 무너져 가는데 체계적 관리 '팔짱만'

중손 고령화로 代 끊길 위기를 종택 보수·정비 예산도 도비 교차 2400만원 책정 전남도 근본 대책 없어

“상당수 종손이 연로한 탓에 종택 등 종가(宗家)문화가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실태조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개인 소유라고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남도문화의 뿌리라는 인식으로 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남도가 ‘종가문화 활성화’를 남도문화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종가에서는 “전남도가 실태조사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불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태조사와 함께 종택의 보수·정비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다. <관련기사 3면>

3일 전남지역 종가들에 따르면 상당수 종가의 종손들이 고령인 탓에 종택 등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종가의 살림을 도맡았던 종부가 병환으로 드러눕자 종가문화가 끊기게 됐다든 우러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종가 실태조사를 담당한 전남문화재단연구소는 화순 제주양씨 학포종가 조사에서 종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중부 인터뷰를 하지 못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졌다.

조사자들은 보성의 한 종가 보고서에서 “종손이 연로한 관계로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할지 미지수”라며 “현재 전남 종가가 직면한 문제인만큼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내었다.

상당수 종손들은 고령과 생활환경의 어려움을 들어 지자체가 종가 관리에 나설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종가(종택) 보수·정비 사업 예산으로 8200만 원을 책정하는데 그쳤다. 이 중 도비는 2400만원, 시군비는 1400만원뿐이다. 나머지 4400만원은 종가가 부담하고 있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나주의 나주읍씨 대종가, 담양의 장흥고씨 양진재 종가와 전주이씨 월평군과 종가 3곳의 수목 정비, 기둥·기와 등 종택 보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보수·정비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가에서는 종택 정비·보수 비용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종택 대부분이 전통가옥인 탓에 보수비용이 일반건축물의 3~4배 가량 더 든다는 것이다. 또 대표적 종가의 경우 원형이 변경된 건축물들의 복원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중(나주 밀양박씨 청재공파 청재종가) 전남종가회 부회장은 “종가문화는 남도문화의 뿌리이자 호남학의 기초”라



폭염 가르며... 시원한 수상스키 질주

광주·전남 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오르 내리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영광 불갑저수지를 찾은 한 시민이 수상스키를 타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며 “종가는 건축물·역사인물·민속문화 등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속 전남문화재단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남의 종가 관리의 경상도에 비해 늦은 편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숨어있는 종가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역경제 '트리플 악재' 위기감 고조

금호타이어 사태 장기화 방직업계 공장 이전·폐쇄 기아차 파업·통상임금 소송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의 매각 문제가 장기화된 데 이어 방직업계의 공장 폐쇄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역시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파업 수순에 돌입한 상태다.

3일 지역민들을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경기가 가파르거나 악화한 상태에서 지역 대기업들의 잇단 악재가 지역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각 장기화 경영난 3중고=지역 유일 향토기업인 금호타이어는 매각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거대한 중국자본에 휘둘리며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4조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연결기준으로 2조 9476억원으로 4년만에 약 1조원이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경쟁사 대비 무척 낮

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원재료 가격하락 추세로 인한 타이어시장 경쟁심화 등으로 한국과 중국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한 탓도 있지만 잇따른 노조의 파업과 매각문제가 맞물린 경영악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직업계의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파도 지역경제를 위협하게 하고 있다. 지역 방직업계를 이끌었던 전방(주)이 공장 폐쇄 등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함에 이어 광주에 면사공장을 두고 있는 (주)경방도 시설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확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특성상 전체 직원의 80%가 여성이고 이 중 90% 가량이 재취업하기 어려운 중년의 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장 폐쇄에 따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아차 역시 노조의 파업 결의와 함께 8월로 다가온 통상임금 소송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론은 이달 내 이뤄질 전망이다.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우려 확산=기아차를 둘러싼 통상임금 소송은 청구 금액만 7287억8600여만원에 달해 업계에서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안게 될 것

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17~18일 찬반투표를 통해 6년 연속 파업권을 확보했다. 각종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파업소식은 우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기아차 노조의 파업결의 소식을 들은 지역민들이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라며 거센 비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노사상생’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각종 악재는 협력업체를 비롯한 경제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는 파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측은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당 생존이 더 중요”...안철수 당대표 출마 선언

일부 의원들 강력 반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3일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면서 8·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제가 다음 대선에 나서는 것을 우선 생각했다면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 당내 비 안철수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동료동계 인사들의 집단 탈당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당 내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회견에서 5·9 대선에서 패배한 지 약 3개월 만에 당 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결코 제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 전 대표는 당내 대선 패배 책임론과 함께 전당대회 출마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는 “대선 패배의 근본적 책임은 제게 있다”면서 “한 분 한 분 만나 소통하고 최대한 설득하겠다.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그는 원내 전략과 관련, “국민을 모시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과도 주저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핵과 미사일 위기, 부동산 폭등, 불안

정한 에너지 정책 같은 문제를 두고는 분명한 역할을 하는 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생각에 동의하는 정당과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발생한 문준용씨의 흑제보 조작사건과 관련, 지난달 12일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반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곧바로 당권에 도전한 것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이어 안 전 대표가 두 번째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전 상임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동엽, 라미란은 NK뷰키트로 체크합니다

우리나이엔 면역력이 중요하니까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화

문의: 080-340-2222 www.nkvue.com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심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